

- 제2회 세계한식요리경연축제 참가 - 미 국 방 문 성 과 개 요

□ 전주 맛, 미국 진출기회 마련

- 현지인들은 채소(나물)와 콩(순두부)이 대표적인 건강식임을 인식하여 한국음식의 이용률 증가 추세
- 핫소스(고추장 소스)에 대한 선호가 폭발적
- 주식재료인 쌀이 밀보다 더 뛰어난 영양식임을 인식

□ 전주비빔밥 홍보 및 세계화 추진

- 전주비빔밥은 웰빙의 대표적인 음식이며 다양한 비빔행사로 먹고 즐기는 재미를 추구하고 자연친화적인 식자재를 이용하여 현지인들의 호기심 유발
- 전주비빔밥 편이식 개발은 뉴욕 한인의날 행사에서 현지인들이 길게 줄을 서는 등 가장 인기가 많음(현지인이 선호하는 채소 선별이 필요)

□ 전주의 전통문화 소개 및 교류 기회 확대

- 전주문화재단 라종일 이사장의 전주 전통문화 및 음식문화 소개로 뉴욕 현지인들에게 전주를 홍보하고 교류의 폭이 넓어짐
- 뉴욕 현지인 중 국악을 꾸준히 전수해온 사람들이 많아 매년 자체 비용으로 국악대회를 치렀으며, 뉴욕 현지에서의 전주대사습놀이 예선 개최 및 한국에서의 본선 진출을 희망(뉴욕한국국악원 박윤숙)
- 뉴욕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한식세계화는 물론 전주 비빔밥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다짐(박현범외 6)
- 전주비빔밥 홍보대사 위촉(서진형 대표)으로 전주비빔밥 세계화에 적극 대응 계기 마련